

순천·곡성 숨막히는 접전... 4만5000표 이상 얻어야 당선

새누리당 이정현 후보와 새정치민주연합 서갑원 후보의 접전이 펼쳐지고 있는 순천·곡성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투표율이 최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가운데 4만5000표 이상 획득 여부가 승부의 관건일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 때문에 두 후보는 막판까지 적극적 투표층 및 지지세 확보를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4만5000표 이상 획득 여부 주목=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번 순천·곡성 보궐선거의 투표율은 지난 2011년 민주당 노관규 후보와 통합진보당 김선동 후보가 맞붙은 보궐선거 투표율 41.3%보다 다소 높은 45% 전후로 예상하고 있다.

투표율을 45%로 가정할 경우 유권자 23만1895명(순천 20만5181명, 곡성 2만6714명) 가운데 10만4352명이 투표에 참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 구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산술적으로 5만2200명의 선택을 받으면 과반 득표로 당선 가능성이 있지만 통합진보당 이성수 후보와 무소속 구희승, 김동철 후보 등도 상당한 지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전체 투표자의 41~44% 수준인 4만2874명에서 4만5914명의 지지를 얻는다면 당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지역 정치권에서는 전망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새누리당 이정현 후보와 새정치민주연합 서갑원 후보가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다는 점을 들어 4만3000표 사이에서 간발의 차이로 승패가 갈릴지 않겠느냐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이에 따라 당일 투표율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투표율이 42% 이상 높게 나타날 경우 정당 지지도에서 크게 앞서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서갑원 후보가 유리할 것이라

투표율 45% 전후 예상

40% 초반 득표면 당선

투표율도 승패 가를 변수

‘호남예산 지킴이’ 이정현

3선 도전 서갑원 ‘양강’

지지세력 결집에 총력전

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이정현 후보 측에서는 각종 여론조사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연령층에서 우세한 상황이라며 투표율이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오히려 이 후보의 대세론이 자리를 잡으면서 높은 투표율이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지지세 확보 총력전=재보궐선거 특성상 투표율이 낮은 만큼 접전 지역의 경우 적극적인 투표층에 의해 승패가 갈릴 수 있다. 따라서 적극적인 지지세력 확보를 위한 선거일까지 확대하는 게 관건이다.

이 후보는 자신의 고향인 곡성이 적극적인 지지기반이기도 하지만, 순천·곡성 인근 자치단체 공무원과 향우회가 상당한 지지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18대 국회에 입성, ‘호남 예산 지킴이’ 역할을 하며 쌓아온 인맥과 각종 민원 해결 등의 역할을 해준 데 따른 감사의 표시로 풀이된

다. 이 후보가 지난 2012년 제19대 총선을 앞두고 광주에서 출판기념회를 개최했을 당시 이례적으로 민주당 소속 전남지역 기초단체장들이 대거 참석한 점도 이를 반증하는 대목이다.

이 후보는 이에 따라 각 지역 향우회 등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지지세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후보 측 관계자는 “이 후보 당선을 통해 호남의 한이었던 지역차별과 지역감정의 벽을 허물어야 한다”며 “순천·곡성 유권자의 깨어있는 한 표로 대한민국을 새 길을 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서갑원 후보는 새정치민주연합의 탄탄한 지지기반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지지세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 정당 지지율이 높은 만큼 지역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바닥 민심을 훑고 있다.

특히 서 후보 측은 지난주부터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와 문재인, 박영선, 박지원, 추미애, 한명숙 의원, 권노갑·임재정·정동영 고문 등이 잇달아 지원 유세에 나서면서 한 때 흔들렸던 순천 민심이 새정치민주연합 측으로 기울었다고 확인하고 있다. 여기에 당일 투표율이 40% 이상만 된다면 지역 정서와 정당 지지율 등을 감안할 때 서 후보가 여유 있게 승리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서 후보 측 관계자는 “이정현 후보를 지지하는 것은 철저한 호남 배제에 나서고 있는 박근혜 정부에 표창장을 주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서 후보를 호남의 재목으로 키워 치기 정권 창출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7·30 순천·곡성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이틀 앞둔 28일 새누리당 이정현(왼쪽) 후보와 새정치민주연합 서갑원 후보가 유세차량을 타고 순천시내를 돌며 막판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순천=김은중기자 ejkim@kwangju.co.kr

“재산 축소 신고 아니다”... 권은희 손 들어준 선관위 수도권 새누리 후보들 역풍 맞나

“김용남 후보는 축소 신고” 새정치 맹공... 표심 영향 주목

7·30 재보선 출마자인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후보(광주 광산읍)와 새누리당 김용남 후보(수원병)의 재산 축소 신고 의혹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엇갈린 판단을 내려 선거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7일 권 후보에 제기된 부동산 9건 등 일각의 재산신고 누락 주장에 대해 “공직자 윤리법상 신고대상인 아니다”고 통보했다. 앞서 지난 18일 한 인터넷 언론은 권 후보가 남편 명의의 부동산 수십여건을 축소 신고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으며 이후 새누리당은 권 후보를 집중 공격했다.

경기도 선관위는 “조사 결과, 김용남 후보가 ‘대지’로 지목이 변경된 남양주 땅을 발표로 신고하는 등 재산을 축소 신고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 같은 내용을 알리는 공고문을 수일 필달 투표구 54곳에 각각 5장씩 붙이기로 했다”고 28일 결정했다. 김 후보의 재산 축소규모는 5억원 수준이다.

앞서 김 후보는 “지난 9일 공천을 확정 받고 다음날 후보자 등록을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신고를 맡겼는데 최종 점검을 꼼꼼히 하지 못해 빚어진 일”이라며 “의도적인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이처럼 선관위의 결정이 야당에 유리하게 나오면서 여당은 말을 아끼고 있는 반면 야당은 맹공을 가했다.

새정치연합 김한길 공동대표는 이날 김포에서 가진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후보가 재산을 허위 축소신고한 것을 선관위가 지적했다”며 “후보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고 압박했고, 박영선 원내대표도 같은 날 서울 광화문에서 가진 의원총회에서 “선관위 발표로 권 후보에 대한 새누리당의 악의적 왜곡은 거짓으로 밝혀졌고 김

후보의 재산신고는 명확하게 허위로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권 후보는 전략공천 이후부터 야당이 주 공격대상으로 삼았던 인물. 이 공격의 여파로 수도권 선거가 야당에게 불리하게 진행되기도 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의 공격 일부가 타당하지 않았다는 선관위의 결정으로 그동안 반사이익을 누렸던 수도권 여당 후보들은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커졌다.

더욱이 새정치연합 측은 김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을 뿐 아니라 당선이 되더라도 선관위의 이번 결정으로 또다시 재선거를 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라고 공격하고 있어 김 후보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새누리당이 권 후보를 공격해 수도권 여당 후보를 도우려다가 오히려 자당 김용남 후보를 공지로 몰아넣는 자충수를 당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수원정 박광온 선전, 수원을 백혜련은 고전

수도권 호남출신 후보 주목

7·30 재보선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지역에 출마한 호남 출신 박광온, 백혜련 후보의 성적표에 대해 지역민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두 후보는 모두 새정치민주연합으로부터 전략공천을 받았으며 경기도 수원에 출마했다.

해남출신인 박 후보는 MBC에서 보도국장 장과 앵커를 지냈으며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을 거쳐 이번에 수원정(영통)에 공천받았다. 상대 후보는 정통 경제관료 출신으로 분당에서 3선 의원을 하고 이명박정부에서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낸 거물이다.

하지만 수원정 지역구는 지난 2004년 신설된 후 새정치민주연합 김진표 전 의원이 내리 3선을 했던 곳이다. 또 6·4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남경필 경기지사가 김 전 의원에 16%포인트나 뒤진 곳이기도 하다. 야당 강세 지역으로 분류되는 이유다. 더욱이 정의당 천호선 후보가 지난 24일 전격 사퇴, 박 후보로 단일화되면서 선거 막판 박 후보에게 유리한 형국으로 선거판세가 흐르고 있다는 분석이다.

수원을(권선구)에 출마한 백 후보는 김사 출신 변호사로 지난 2011년 이명박정부 당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훼손에 항의하며 사표를 던져 유명세를 탔다. 당시 백 변호사는 ‘김사 사직의 변’

에서 “어찌하다 저의 검찰이 여당 국회의원에게조차 ‘정치를 모르는 정치검찰’이라는 말을 듣게 됐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상대 후보는 사법고시 1년 및 검사 선배인 새누리당 정미경 전 의원. 18대 이 지역에서 국회의원을 지낸 정 후보는 19대 총선 때 당의 공천 방침에 반발해 무소속으로 출마, 23.8%의 높은 득표율을 기록하는 등 지역 기반이 강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따라서 백 후보 입장에서 현재까지는 쉽지 않은 판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선거 막판 여당에 대한 견제심리가 작용, 역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좋은 정책 공약 투표로 응원하세요

투표함

7·30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투표시간 오전 6시 ~ 오후 8시

- 투표장소** : 주민등록지 지정 투표소
 - ※ 투표안내문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와 '선거정보' 모바일 앱 '내투표소 찾기' 메뉴에서 투표소 위치와 약도 확인가능
- 준비물**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
- 만 19세 이상**(1995. 7. 31. 이전 출생자) 투표할 수 있습니다.

선거실시지역

※ **전라남도**
순천시·곡성군, 나주시·화순군,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 **광주광역시(을)**
침단1동, 침단2동, 신가동, 수원동, 비아동, 하남동, 임곡동, 신창동

공명선거 홍보대사
MBC아나운서 김소영

고용주가 근로자의 투표권을 보장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만 19세 이상(1995. 7. 31. 이전 출생자) 투표할 수 있습니다.